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song.co.kr E-mail : ejs0835@hanmail.net

종보는 모든 종원들의
정성과 동참으로 만들어집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농협 : 351-1084-0817-03
예금주 : 은진송씨 쌍청당 공파 종중

■發行人/宋錫根 ■編輯人/宋在億 ■印刷人/宋富鎬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上四代 歲一祀 및 진사공·류조비 세일사 봉행

4월 29일(음력 3월 10일) 전국에서 종원 200여명 참제

2023년 4월 29일(음력 3월 10일)은 우리 은진송씨의 오늘을 있게 한 5세 진사공 克亨 己亨 선조와 그 부인 안인 高興柳氏의 세일사일이다.

대지를 축축히 적시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담은 축복의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은진송씨 대종회 설행으로 대전 동구 마산동 추원사에서 상4대에 대한 향사와 류조비 세



▲ 상4대 세일사 봉행

일사를 봉행하였다. 이날 세일사는 전국 종친회 및 대종회 임원 등 종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상4대 세일사를 시작으로 봉행되었다.

상4대 세일사는 직일을 맡은 첨사공파 송서호 목사공종중 회장의 상4대에 대한 설명 후 집례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의 엄숙한 진행으로 이어졌다.

초헌은 대종손 연안공파 송교진, 아헌은 삼가공파 송석철, 종헌은 연안공파 송기선, 축관은 추파공파 송희동, 집사에는 쌍계당공파 송용재, 송창공파 송무영, 연안공파 송지영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진설은 호군공파 송덕영이 주관하였다.

상4대 세일사가 끝난 후 비가 오는 관계로 추원사에서 류조비 세일사 및 산신제를 봉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종회장은 아침 일찍 류조비 묘소를 참배하고 재실에서 세일사를 진행하게 됨을 고하였다.

류조비 세일사는 직일을 맡은 쌍계당공파 송철기 파유사의 안인 류조비에 대한 설명 후 집례 호군공파 송하영의 엄숙한 진행으로 이어졌다.

제관들이 질서 있게 도열한 후 쌍계당공파 송철기 직일의 향사 선언에 이어 5세조 극기 선조와 류조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류조비께서는 22세에 청상이 되셔서 당시의 풍습대로 재가했더라면 오늘날 우리 은진송씨가 이같이 훌륭하게 번창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모의 뜻을 어기면서 재가하지 않고 개성에서 삼칠일을 밤낮으로 외아들 쌍청당(愼)을 등에 업고 호랑이의 안내를 받으며 회덕으로 내려와 어려운 가운데도 가문을 위해 희생하시었다”고 설명을 마치고 창홀하기를 청하였다.

초헌은 대종손 연안공파 송교진, 아헌에는 동파공파 송재무, 종헌에는 안소당공파 송우영, 축관에는 우암문정

공파 송영문, 집사에는 쌍계당공파 송용재, 연안공파 송지영이 맡아서 진행하였다. 진설은 호군공파 송덕영이 주관하였다. 류조비 세일사 및 산신제를



▲ 류조비 세일사 봉행

마친 후 종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대종회 장학생 3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처음으로 봉행된 이날 세

일사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서울, 대구, 인천, 익산, 논산, 보은,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었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있게 향사를 마친 후 추원사 실내 및 관동묘려 재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은송의 발전을 위해 담소를 나누었다.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

대종회 송석근 회장 - 신암 송병조 선생 동상에 헌화

은진송씨 대종회(회장:송석근)는 2023년 4월 11일 11시 청남대에서 열린 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식에 참석하여 송병조 제6대 주석 동상에 헌화하고 조상의 숭고한 얼을 되새겼다.



▲ 신암 송병조 선생 동상에 헌화하는 송석근회장

이날 행사에는 임시정부 설립에 큰 공을 세운 독립유공자 유족과 각계 주요인사와 임시정부 행정수반 8분의 후손들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했는데 우리 은진송씨 송석근 대종회장은 신암 송병조 선생의 후손자격으로 초청되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라는 주제로 식전공연, 태극기입장, 국민의례, 기념사, 약사보고, 축사, 헌시낭송, 독립군가, 만세삼창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3.1운동 정신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흩어져 있던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조국독립을 쟁취한 날까지 27년간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다.

우리 선조 송병조 선생은 임시정부의 재정적 기

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1926년 임시의정원 의장, 1933년 임시정부 재무장 및 국무회의 주석, 1934년 임시의정원 미주대표의원 및 의장, 1941년 임시정부 회계검사장과 임시의정원의장으로 독립운동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사수하는데 세운 공을 인정받아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송석근 대종회장은 은진송씨 후손으로서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감격스럽다며 송병조 선생의 얼을 되새기어 우리 후손들이 숭고한 자주독립의 정신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청남대 내 “대한민국임시정부광장”에 건립된 지상2층 지하1층의 기념관으로 2022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3주년에 개관하였다.



▲ 아랫줄 우로부터 송서호 목사공종중회장/송석근 대종회장/송태영 고문

이날 행사에는 대종회에서는 송석근 대종회장, 송태영 고문, 송황준 총무유사 그리고 목사공 종중에서는 송서호 회장, 송화영 장재유사, 송기영 총무유사가 함께 참석했다.

2023년도 대종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류조비 세일사 봉행을 마치고 2023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창공파 송유진 (미국 버클리대학 사회학과 4학년), 동춘당 문정공파 송연중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잠부공파 송재훈 (서울대학교 문리전문학과 1학년)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 각 1,000,000원을

수여하였다.

이 날 시상식 자리에서 대종회장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욱 정진하여 장래의 훌륭한 포부를 실현하고 은송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상식에 참석한 많은 종원들로부터 힘찬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송 유 진



송 연 중



송 재 훈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

포상심사위원회 개최

2023년 4월 4일 10시 정각 대종회 사무실에서 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류조비상 추천자에 대한 상격 심사를 하였다.

이날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종회장은 심사에 앞서 포상심사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상격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추천된 후보는 1명으로서 포상심사 규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포상심사규정 제7조 1항에 규정에 따라 39개파 공사원 또는 시도(市道) 지역종친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년도 수상자는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마쳤다. 은송의 며느님이나 따님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이 있을터인데 발굴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다. 내년에는 훌륭한 분이 추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학위원회 개최

은진송씨 대종회는 2023년 4월 6일 (목) 10시 대종회사무실에서 2023년도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장학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종회장은 장학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장학생 선발 자격조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학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심사에서는 장학금 확대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장학사업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추천된 후보자 3명 전원을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으로는 고창공파 송유진 (미국 버클리대학 사회학과 4학년), 동춘당문정공파 송연중(충남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잠부공파 송재훈(서울대학교 문리전문학과 1학년)이며 4월 29일(토) 류조비 세일사 향사 후 추원사에서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 1백만원을 수여하였다.



문화행사위원회 개최

은진 송씨 대종회는 2023년 4월 21일(금) 10시 대종회사무실에서 2023년도 제1차 문화행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문화행사위원회의에서 대종회장은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상4대 세일사 및 진사공 류조비 세일사준비에 대한 일정별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행사 당일까지 보완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문화행사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나눈 후 추원사 상4대 세일사 준비 및 진사공 류조비 세일사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특히 행사에 참석한 참제자 및 후손들이 은진송씨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행사위원은 연안공파 송지영, 호군공파 송하영, 송덕영, 송창공파 송인봉, 송무영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울산종친회 정기총회

울산종친회(회장:송영달)는 지난 3월 26일 목화컨벤션에서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총회를 열지 못하다가 종원들이 모처럼 만나니 서로 반가운 얼굴들이었다. 송원개 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순에 따라 송재철 총무의 세입·세출 보고 및



예산(안) 등을 세세히 설명하였고 임원 개선에서 송동진 명예회장의 임시의장 사회로 송영달 회장을 재선임하고 임원선출이 있었다. 송영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일년에 한번 우리 종친이 정기총회와 대전 세일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가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훌륭하신 선조님들의 열과 사상, 문화유산을 기리기 위함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2부에서는 조상 내력 퀴즈 등 다양한 경품추첨이 있었고 서로의 따뜻한 정으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총회를 마쳤다.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개기식(開基式)



▲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지난 2023년 3월 6일 우리 은송의 장묘문화 성지인 이사동 송담 남수 선조님의 산소가 올려다 보이는 이사동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송인석 대전시의회 예결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개기식을 개최했다. 우리 종중에서는 송석근 대종회장, 송성호 파유사회회장, 송태영 고문, 송서호 목사공종중공사원 등 많은 종원이 참석하였다.

개기식(開基式)은 ‘건물을 지을 터를 연다.’는 전통건축의 용어로 오늘날 자주 쓰는 기공식에 해당한다.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건립사업은 대전을 대표하는 명문 사족인 우리 은진송씨의 분묘 1,070여기와 재실(齋室)들이 밀집된 이사동을 ‘유교민속마을’로 조성하는 대전시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의 핵심사업이다.

경칩에 이루어진 이 날 개기식은 전통 건축의례인 ‘텃고사’, ‘모탕고사’를 재현하고 식전 축하 공연으로 태평무가 무대에 올려지며 개기식의 의미를

더했다.

사업비 130억8천만 원을 투입, 연면적 760.71㎡로 건립되는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은 교육동, 관리동, 전통건축체험(한옥스테이)을 위한 한옥 등 총 10동이 건립된다. 이 외에도 오솔길 조성,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공간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유일의 한옥 전통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사동을 보존하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이 담당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운영하겠다고 인사를 하였다.



▲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송서호 목사공종중회장, 세 번째 송석근 대종회장, 네 번째 송성호 대종회 파유사회 의장, 오른쪽 두 번째 송태영 고문이 이장우 대전시장 등과 함께 개기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송석근 대종회장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은진송씨 대종회장 송석근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 절기일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건립을 위해 그 터를 열고 닦는 성대한 식전에 분망한 시정을 뒤로하고 참석하신 이장우 대전광역시시장님, 송인석 시의회 예결위원장님, 정명국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살림을 살피주시는 박희조 동구청장님과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님, 정홍재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국장님과 함께 원근 거리에서 이 뜻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유교 전통문화 보존사업의 초석을 놓는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빈 여러분께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사동은 우리 은송의 선조님의 숨결과 열이 깃들여 있는 유교전통문화의 마을입니다. 특히 오도산 자락의 산등성을 따라 자연지형 그대로 계장된 1070기의 은송단일 씨족 묘소와 그 시대적 석물의 장묘

문화, 그리고 제향을 모시는 재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며, 그 중 재실 두 채와 3기의 묘역이 대전시 지정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개기식이 이 마을의 유교 전통문화 보존지역 가꾸기로 더욱 발전하여 우리의 유교 전통문화를 체험과 관람하는 인파가 국내외적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대전 시민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이사동 유교 전통의례관 건립을 위한 터를 여는 행사를 성대히 마련하여 주신 이장우 대전광역시시장님께 30여만 은송인의 큰 성원을 모아 정중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6일
은진송씨 대종회장 송 석 근

송창공파 송승섭 변호사 개업



송승섭 변호사

송승섭 변호사는 2022년 말 대전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정년 퇴임하고 2023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목타워에 있는 법무법인 유엔아이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송변호사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사시 제25회(사법연수원 15기)에 합격했다. 대전고검, 대전지검 부장검사, 의정부 고양지검 차장검사 안동, 진주 지청장을 역임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등 중요경제범죄조사 1팀장,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그리고 공인 전문검사(교통 분야)로 교통사범 수사실무(신인 검사과정) 강의, 고려대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강의를 10여년간 해온 교통사고 전문 검사 출신이다.

2023년도 대전지역 성현(聖賢) 춘향제

1. 회덕향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97번 안길 126(읍내동)에 있는 회덕향교(전교 조만형)에서는 2월 28일(음력 2월 9일 初丁)에 석전대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대덕구청장 최충규崔忠圭, 아헌관에는 대덕구 행정동



▲ 회덕향교 석전대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우회장 이희찬 李璿熙, 종헌관에는 성균관 전의 임덕순任惠淳, 동분헌관에는 향교 장의 박원기朴元基, 서분헌관에는 향교 장의 김장원金長元, 예차 헌관에 전유도회장 최재문崔在文, 집례향교 장의 송인수宋寅受, 대축향교 장의 송영래宋永來 외 집사 여러분이 11시부터 12시까지 질서 정연하게 봉행하였다. 금년에는 식전 행사로 비봉서당 생도들이 와서 한복을 입고 경서 암송을 해 주었다. 회덕향교에는 공자를 비롯한 4성聖과 송조4현賢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있으며 18현 중 동춘당송준길同春堂宋浚吉, 우암송시열尤庵宋時烈 두 분이 우리 은진송씨恩津宋氏이시다. 이날 송석근 대종회장, 동춘당공파 송용순 도유사, 송창공파 송구영 공사원, 사우당 효정공파 송진팔 공사원 등이 함께 했다.

2. 문충사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73번길 44(용운동)에 있는 문충사(이사장 전재환)에서는 3월 20일(음력 2월 29일 末丁)에 그간 코로나 때문에 참제 하지 못 했던 유림들이 전국 각처에서 참석하여 성대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초헌관에는 대전시 동구청장 박희조朴喜祚, 아헌관에는 전남 곡성 유림 정종표丁宗杓, 종헌관에는 경남 거창 유림 김수찬金壽贊, 집례 이사 송영래宋永來, 축관 세종시 연기향교 전교 최청환崔淸煥 외 봉향봉노 봉작 전작 알자 사준 직일 제생 등 집사는 먼 곳에서 온 유림으로 분방하여 보람된 수고가 있었다.

문충사에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상소하고 일제의 국권 피탈에 자결한 연재 송병선을 주향으로 하고 경술국치에 형 송병선을 따라 자결한 심석재 송병순 형제를 배향한 사우이다

금년에는 윤달이 있어 남간사 춘향은 4월 29일 (음력 3월 초정)이고, 송현서원 춘향은 5월 9일 (음력 3월 중정)에 봉행하니 많은 참제 바란다.

(편집위원 송창공파 송구영)

돈암서원 춘계 제향

지난 3월 10일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돈암서원에서 2023년 춘계 제향행사가 거행되었다.

돈암서원은 고종 8년(1871년) 전국적 서원 철폐령에도 보존된 47개 서원 중 하나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서원이다.



조선 후기(17세기) 호서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예학의 산실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사계 김장생선생을 주벽으로 신독재 김집선생, 동춘당 송준길선생, 우암 송시열선생 4현을 배향한 서원으로 4현 모두 문묘에 배향된 동국 18현이시고 돈암서원 묘정비는 우암 선조께서 찬하시고 동춘당 선조 글씨로 세워졌다.



地負海涵：땅이 온갖 것을 등에 지고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주듯 포용하라. 博文約禮：지식은 넓히고 행동은 예의 바르게 하라. 瑞日和風：좋은 날씨, 상서로운 구름, 부드러운 바람과 단비, 즉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웃는 얼굴로 대하라.

제향 공간인 송례사 내삼문 옆 꽃담에 새겨진 지부해함(地負海涵), 박문약례(博文約禮), 서일화풍(瑞日和風)이란 글귀는 사계선생과 그 후학들의 예학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12개의 글자를 전서체로 새겨놓았다.

코로나 사태 후에 거행되는 행사에



예전보다 참제자 수가 많이 줄어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금번 제향에 우리 恩宋에선 송석근 대종회장, 송용순 동춘당 문정공종중 도유사, 송영진 동춘당 문정공종중 총무가 참여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계 김장생선생 묘역과 동춘당 선조 묘역을 찾아 참배 후 돌아왔다.

(동춘당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



동춘당 송준길 송모제례 봉행

2023년 4월 22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역사공원에서 동춘당 송모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송모제례에는 대덕구청 및 회덕향교 관계자와 송석근 대종회장, 송용순 동춘당 문정공파 도유사, 송성호 은진송씨 파유사회 의장, 송동호, 송희원, 송준빈 고문과 각 종중대표 등 은진송씨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초헌관에는 대덕문화원장이종철, 아헌은 대종회장 송석근, 종헌은 성균관유도

회 대전광역시본부 회장 송남섭, 집례는 송인수, 축문은 송영래가 맡았다.

제례가 끝난 후 동춘당 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 으로부터 동춘당 역사공원의 유래 및 동춘당의 삶에 대한 소개와 감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동춘당 송모제례는 송준길 선생의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며 고결한 선비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동체의 식과 봉사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

사이다.

동춘당 송준길 선조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시호는 문정(文正),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1606년 태어나시어 1672년 타계하였으며 167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681년 시호로 문정이 하사되었고 1756년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우리 민족의 대학자로 추앙받고 있다.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과 회덕향교가 주관하는 동춘당문화제

는 1996년에 시작되어 금년에 26회를 맞이하여 동춘당 송준길선생의 생애 및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자 열리는 역사문화축제이다.

오전 10시 반 송모제례를 시작으로 유교 경전암송, 전국귀호대회, 문정공시호봉송 행렬, 줄타기 공연, 동춘당 서사극과 동춘장터, 16개의 각종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문화축제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축제이다.

「선조님 발자취를 찾아서」 선적지 순례

2023년도 목사공종중 정기 순례행사 3년만에 실시

목사공 종중(회장 송서호)은 2023.5.2 일 선조님의 유훈과 업적을 봉송하고 종원간 화합과 종중의 번영발전을 목적으로 목사공 종중 예하 21개파 공사원, 파유사, 고문, 상무유사님과 대종회 송석근 회장님을 비롯한 대종손(송교진), 대종회 임원 그리고 각 종중 대표님 등 40여분을 모시고 2023년도 <선조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순례행사를 실시하였다.

목사공 종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선적지 순례행사를 <선조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선조님의 고귀한 일을 되새기고, 우리 후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고귀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서울에서 참석하신 대종회 파유사회 부의장(송삼덕)님을 비롯해 거리의 원근을 불구하시고 새벽부터 내왕해 주신 전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목사공 종중에서 발간한 “은진송씨 문화재 및 유적지 순례” 책자의 발간 취지 및 각 선적지에 대한 이당 송성빈님의 설명과 더불어 경수 권역 평산공 산소와 정랑공 산소는 녹산 송성호 정랑공 공사원(대종회 파유사회 의장), 상 사한리 영귀대 권역

사우당 작은 송진팔 공사원(효정공 사우당공파)의 자세한 설명으로 선적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순례는 평산공, 정랑공 산소 참배를 시작으로 → 집단공유허비, 관동묘려 → 산소골 쌍청당대비 순례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송당 신도비 → 사우당 각 → 대종가 쌍청당, 류조비정려각 → 동춘당 고택, 호연재 고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순례행사를 주관한 목사공 종중(회장 송서호)은 여건 관계상 찾아뵙지 못한 선적지가 많아 아쉬움이 남았으나 이번 선적지 순례가 종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선조님의 발자취를 알리는 유익한 행사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더 유익한 행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사공종중 총무유사 송기영)



은송 사상(恩宋思想)은 조선 유학(朝鮮儒學)의 뿌리다.

사우당효정공파 공사원 송진팔(宋鎭适)

젊을 적부터 송씨(宋氏)라고 하면, ‘어디 송씨’냐고 본관(本貫)을 묻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은진(恩津)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우리나라 역사와 명문가(名門家)에 관심있는 이들은 꼭 우암(尤庵)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이처럼 우암 선대(先代)는 은진송씨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다. 4백여 년 전 태어나 지금까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이 당대에는 얼마나 대단하였을까 싶다. 이처럼 우암은 조선 중기에 태어나 노론의 영수가 되어 조선 후기 사회까지 영향을 끼쳐 지금에 이르렀으니 그 평가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나는 우암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암을 바라보며, 나아가 은진송씨까지 바라볼까 생각하곤 한다. 흔히 우암 송시열(宋時烈)하면 노론, 소중화주의, 예송논쟁 등을 떠올리곤 하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으나 아마도 우암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자(子)의 칭호를 받은 성현으로 공자, 맹자, 주자, 송자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보가 성립되었다. 사계(沙溪) - 신독재(慎獨齋)를 이어 기호학파의 주류가 된 학자이자, 서인의 지도자, 조선 중기(中期) 이후 조선을 성리학(性理學)의 나라로 만든 조선의 주자(朱子) 등 다양하게 칭송받기도 하지만, 친명(親明) 사대주의자, 공리공담을 일삼은 허(虛)학자, 상복(喪服)을 몇 년 입느냐는 불필요한 논쟁을 이어나갔던 정치인, 노론의 영수였던 봉당정치(奉堂政治)의 주역 등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런저런 견해를 들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본 내 나름의 결론은, 긍정적 부정적 견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우암은 궁극적으로 소중화(小中華) 사상을 내세우며 조선을 정신적으로 독립시킨 성리학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비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율곡(栗谷)-사계(沙溪)-신독재(慎獨齋)를 잇는 큰 학자였다. 스승에게서 배운 이기(理氣) 철학을 바탕으로 소중화 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상 체계를 만들었고, 그 무렵부터 조선은 고유의 문화와 예술이 꽃피기 시작했으니, 우암은 중국(中國)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다.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조선은 바로 성리학의 나라였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초기 조선은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영향이란, 약소국으로 명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조공을 바쳤던 정치적 속국(屬國)의 개념뿐만은 아니다. 그저 이는 어쩔 수 없이 국력이 약했던 탓이다. 다만 송나라 때 주자(朱子)에 의해 정립된 성리학은 이후 명나라의 건국이념이 되었고, 조선도 성리학을 건국 철학으로 삼았기에 조선은 명(明)나라와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면서 사상 철학적으로 명나라 영향 아래 있었고, 문화와 생활 또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신적인 독립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피부색이나 영토가 아닌 철학과 언어라고 한다. 영토를 빼앗기고 의복을 강제하더라도 그 민족만의 언어와 고유의 사상이 있다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으며, 타민족과 구분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조선 초기는 정치뿐 아니라 철학적으로 명나라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의 고유 사상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단군(檀君) 신앙 등 독자적 민족의식이 있었다지만, 주된 풍조는 여전히 중국 영향 아래 있었고 보인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였지만 사대부들은 여전히 한글을 거부하였고, 많은 예술 사조 또한 중국풍 그대로였다. 이는 조선이 사상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처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선 언제나 인문학과 철학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사상이 먼저 싹트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술, 문화 등이 변화하는 것이니 수많은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인문학(人文學)을 반드시 장려해야 하고 인문학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다.

신진사대부들은 고려(高麗)말 중국으로부터 이어받은 성리학을 흡수하기 바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선이 세워졌고, 성리학의 체계대로 사회는 안정되어 갔다. 그리고 성리학이 널리 퍼지고 뿌리내리면서 조선에는 고유의 독자적인 이기(理氣)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명나라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우리만의 고유 철학이 자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당시 대표적 인물들이 고봉 기대승, 퇴계 이황, 율곡 이이 같은 이들이었다. 이들의 철학 논쟁을 이기(理氣) 논쟁이라 부른다. 조선의 이기논쟁을 두고 공리공담만을 일삼았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철저한 식

민사관(植民史觀)이며 인문학과 철학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무지(無知)한 소견일 뿐이다. 이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계승하여 독자적인 이기론을 내세우면서, 조선은 비로소 정신 철학적으로 자립할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의 독자적 사상이 생겼기 때문에 조선은 세계 어딜 내놓아도 손색없는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가 될 수 있었다.

17세기는 조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나라가 크게 요동치기도 하였지만, 조선이 변화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조선만의 고유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자 1년간 출가(出家)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어려서 배운 성리학과 출가 시절 공부한 화엄학(華嚴學)을 바탕으로 다시 성리학을 발전시켰고 ‘기발이승일도론(氣發理乘一途論)’을 완성했다고 전한다. 그 사상을 바탕으로 그가 주장한 경장론(更張論)은 임금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경장(更張)이라는 말처럼 조선은 17세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사회, 문화, 예술로 이어졌다.

예전 간송미술관에서 송시열 탄생 400주년 기념전을 열어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들은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중국 성리학을 독창적인 조선 성리학으로 소화해 낸 율곡학파의 3대 수장인 우암(尤庵)의 사상은, 조선 산수를 독자적으로 그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뿌리를 이뤘다”고 한다. 조선 고유의 이기 철학이 뿌리내리면서 예술 사조, 학문 풍조 등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 진경산수화가 미술사에서 꼽는 대표적인 자주적 변화라는 것이다. 진경산수화 이전의 화풍은 모두 중국에 영향을 받은 화풍(畵風)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사상이 생기면서 조선만의 화풍이 생길 수 있었고, 우암의 사상은 조선만의 고유 화풍으로 그려진 진경산수화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17세기를 기점으로 진경산수화뿐만 아니라 문학 사조, 실학 사상 등 많은 사회적 변화와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암은 소중화(小中華) 사상을 통해 조선의 정신적 자주독립을 꾀했다. 명나라는 망했지만, 우리에게 성리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우리 고유의 자생 철학이 있으니, ‘우리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이 소중화론이었다. 혹자는 친명(親

明) 사대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우암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우암은 국력 논리상 친명을 표방했지만, 그 내면은 명나라를 떠나 조선이 세계의 중심(中心)이 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우암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그의 스승 신독재 김집, 사계 김장생을 넘어 율곡 이이에게 닿는다. 율곡의 사상을 사계를 통해 정확히 이어받아 체득했기 때문에 소중화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계 김장생은 조선을 대표하는 예학자(禮學者)이다. 어려서 송익필에게 수업하고 이후 율곡에게 사사받아 율곡의 대표 제자로 평가받는 그는, 대를 이어 수많은 성리학자를 배출하였고, 조선을 성리학의 나라로 완성하는 업적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 은진송씨 인(人)들이 사계 김장생의 제자를 대표한다. 동춘당 송준길, 우암 송시열이 대표적인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대표적인 은송(恩宋)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우당 송국택(四友堂 宋國澤)이다. 계문삼송(溪門三宋)이 바로 이 선대들이다. 그는 사계, 신독재에게 수업받고 그들의 사상을 이어받아 조선을 변화시킨 대표적 성리학자였다. 스승 사계(沙溪)가 사우당(四友堂)에게 평생을 가슴 속에 품고 살며 지키라고 준 팔자부(八字符/경이직내 의이방외 敬以直內 義以方外 ; 공경으로서 내면을 굳게 하고, 의로움으로서 외면을 지킨다)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가슴 속에 울림을 준다.

우암과 동춘당은 유명하지만 사우당 송국택은 아직 모르는 이가 많아 간략히 소개한다. 사우당 송국택은 은진송씨(恩津宋氏) 13세 손(孫)으로, 자는 택지(澤之), 호는 사우당(四友堂), 동지중추부사 송세훈(宋世勳)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장사랑(將仕郎) 송화수(宋樺壽)이고, 생부(生父)는 취옹당(醉翁堂) 송희명(宋希命)으로, 둘째 아들로 태어나 재당숙인 금암 송몽인(宋夢寅)에게 입양되었다. 사계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송준길, 송시열과 교유하였고,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624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로 등용되었다. 병자호란 때 전장을 뚫고 강화도에 고립된 원손(元孫)을 구한 공으로 유명하다. 그 역시 사계(沙溪)의 대표 제자로서 조선 고유의 사상과 철학을 개창한 성리학자였다.

<5면으로 계속>

연안공파 송석찬 민족평화공훈대상 수상



송석찬

3.1절 및 대한민국 임정 100주년 범국민추진위원회(총재 김광을 이하 추진위)는 3.1절 및 임정 수립 104주년 해를 맞이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1절 기념행사 및 민족공훈대상식’(이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일운 대한민국의원회 회장,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진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공동의장과 김광을 대한민국 황실 전통문화재단 총재로부터 송석찬 사단법인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장은 민족공훈(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JB금융지주 새 CFO에 송종근 선임



송종근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을 자회사로 둔 JB금융지주가 최고 재무책임자(CFO)로 송종근 부사장(사진·58)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송 부사장은 1965년생으로 부친 송정수(정한)와 모친 함안 조옥자 여사의 삼남매 중 장남으로 전주 출생 은진송씨 28세손 추파공의 17대손이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석사 졸업 후 미국 워싱턴 대학교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마쳤다.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하나은행 경영관리부장과 뉴욕지점장을 거쳐 하나카드 경영전략본장을 지냈다.

이후 STX엔진 사장, 무궁화 신탁 경영전략부문 대표를 역임했다. JB금융은 송 부사장이 재무 및 경영전략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금융전문가로 전통적 은행산업의 특성과 최근 현안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부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올해는 수익성과 건전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중회 인사>

파명	성명	날 짜	내 용
사우당효정공파	송황준(宋晃準)	2023년 4월 1일	任 총무유사

<각 종중 임원 개선>

파명	성명	날 짜	내 용
제월당문회공파	송원섭(宋元燮)	2023년 2월 25일	파유사 선임
호군공파	송덕영(宋德永)	2023년 4월 6일	공무원 선임
잠부공파	송정현(宋正憲)	2023년 4월 7일	공무원 선임
무주공파	송왕호(宋旺鎬)	2023년 4월 18일	파유사 선임

<4면에서 계속>

이기(理氣)철학은 이기 논쟁을 거쳐 퇴계와 율곡 두 학자로 대표되는 학파를 구성하며 우리 고유의 철학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 두 가지 사상은 이후 정치적 계파로 나뉘며 정쟁을 야기하기도 하였지만, 조선을 자주적으로 만들었던 자생 철학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그중 율곡, 사계를 잇는 대표 학자 사우당, 동춘당, 우암이 우리 은진송씨였으니, 우리 은송인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이 성리학자들은 노론, 소론으로 나뉘는 등 소모적 정치논쟁을 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철학이 달라 생기는 다툼은 반드시 있는 것이며, 이런 모습이야말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동인 서인, 노론 소론 등 정당 간 논쟁에도 반드시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논쟁을 하였으니, 그저 살육만을 일삼던 동시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조선은 매우 신사적이고, 품격 있던 나라였으리라 생각된다. 봉당정치라고 비판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는 일제(日帝)의 불순한 의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선을 무너뜨리고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해 제일 먼저 성리학을 비판하고 성리학자들을 매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메이지 유신에 성리학을 기초 철학으로 삼았으니, 이처럼 표리부동(表裏不同) 한 자들이 바로 일본 지도자들이었다.

송씨(宋氏)만큼 동족의식이 강한 성씨도 드문 것 같다. 송씨(宋氏)를 만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德目)

-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싸가지”란 무슨 뜻일까요?
1. 동대문은 인(仁)을 일으키는 문이라 해서 흥인지문(興仁之門)이고,
 2. 서대문은 의(義)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라고 돈의문(敦義門)이고
 3. 남대문은 예(禮)를 숭상하는 문이라 해서 숭례문(崇禮門)이며,
 4. 북문은 지(智)를 넓히는 문이라는 뜻으로 홍지문(弘智門)이라 한다.
 5. 중심에 가운데를 뜻하는 신(信)을 넣어 보신각(普信閣)을 세웠다.
- 한양 도성을 오상(五常)에 기초, 건립하였던 것이다.

오상(五常)이란?

-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인간이 갖춰야 할 다섯 가지 기본 덕목이다.
-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
 - 의(義)는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며,
 -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고,
 -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고,
 - 신(信)은 광명지심(光明之心)으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 밝은 빛을 뽐으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이다.

보신각이 4 대문 중심에서 종을 울리는 것은 인의예지를 갖추어야 인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유교적인 철학이다.

그리고 인의예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은 “사(四)가지 없는 사람”이라 했고, 이것이 변하여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德目)있는 사람이 되자.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원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전을 위하여 종원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내용 :
 - 1) 각 파종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2.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3.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나면 열에 아홉은 본관이 어디인지 그쪽에서 먼저 물어오기도 하고, 혹은 내가 묻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문중 일을 하다 사업자 한 명을 만났다. 우연히 서로 은송인(恩宋人)임을 알게 되었는데, 나 또한 강한 유대감을 느낀 바 있다.

서로 이렇게 본관을 묻는 이면에는 은진송씨라는 자부심이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자부심의 뿌리는 아마도 조선을 정신적으로 독립시키려 했던 율곡과 사계의 사상을 사우당, 동춘당, 우암 등 우리 은진송씨들이 이어받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철학을 바탕으로 조선이라는 한 나라를 세계 중심에 우뚝 세우려 했으니,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으며 대단했겠는가. 조

선 중기, 후기로 이어지며 성리학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조선이 망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오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성리학(性理學)의 본질은 절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런 사상들은 조선 후기 사회의 자생적 변화를 유도했다.

이처럼 조선의 정신적 독립의 바탕에는 조선 고유의 이기철학과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한 은진송씨 선대의 철학과 노력이 있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조선을 다시 세우려한 조상의 뜻과 열을 이어받아 우리 은진송씨 종원들은 더욱 노력, 단결하여 세계에 앞서 나가길 기대해 본다.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1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IX. 강화 충렬사(忠烈祠)

1. 현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충절로 232)
- 창건년대 : 1642년 (인조19)
- 배향인물 : 김상용 이상길 이시직 송시영
 심현 구원일 외 23명
- 제 향 일 : 음력 10월 초정

2. 연혁

1642년(인조19) 병자 정축호란 (1636-1637) 당시 종묘의 위패를 받 들고 세자빈과 원손을 수행하여 강화로 피난하였다가 강화가 청군의 침략으로 함락되었을 때 충성을 바쳐 자신을 희생한 우의정右議政 김상용金尙容, 공조판서 이상길李尙吉, 장령 이시직李時植, 사복시주부 송시영宋時榮, 돈령도정沈諤, 구원일具元一, 여섯분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강화 유생 정건鄭鍵 등의 발의로 창건 현 충사라고 하고 배향하였다.

1657년(효종8) 처음 입향入享하지 못한 후손들의 호소로 훈련정 황선신黃善身, 훈련창 강흥업姜興業을 추배하고 1658년(효종9)에 효종이 강화 유수 허휘許徽에게 현판과 전답을 내리면서 충렬사로 개칭하고 사액했다.



▲ 강화 충렬사 전경

1658년(효종9)에 금부도사 권순장權順長, 생원 김익겸金益謙, 필선 윤진尹楡을 1728년(영조4)에 좌승지홍명형洪命亨을 1787년(정조11)에 광흥수廣興守 이돈오李惇五를 1788년(정조12)에 홍익한洪翼漢, 윤계尹啓 등을 추배하였다.

사당에 29분의 배향된 위차로 보면 주벽에 김상용 동쪽 편에 이상길 홍명형 이시직 윤계 황선신 권순장 김익겸 이돈서 광흥수 민성 언몽상 전기업 이삼 김득남이고, 서쪽 편에 황일호 심현 홍익한 윤전 김수남 강위

빙 이돈오 송시영 구원일 강흥업 황대곤 차명세 이재연 어정 순으로 배향되어 있고 관리는 충렬사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흥선대원군 서원 철폐령 때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사우 중 한 곳이다.

3. 인물 약전

1) 김상용金尙容 (1561-1637)

조선 선조 때 문신으로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 본관은 안동,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1590년(선조23)에 문과에 급제하여 정철 권율 등의 종사관으로 있었고, 1598년(선조31)에 승지로 성절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광해군 때 형조판서를 역임하고 인조반정 후 서인의 한 사람으로 판돈령부사를 거쳐 이조판서 우의정을 역임하고 병자호란 때 왕족을 시종하고 강화로 피난을 하였다가 성이 함락되자 화약에 불을 질러 자결하였다.

2) 송시영宋時榮 (1588-1637)

조선의 문신으로 자는 공선公先, 호는 야은野隱, 시호는 충현忠顯이고 본관은 은진이다.

1588년(선조21) 12월 2일 습정공송방조와 진양정씨 판사공 곡곡의 따님 사이에 4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서 부친의 슬하에서 학문에 정진하여 향시에는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관계官界에는 운이 없었다.

1618년(광해군10) 부친상을 당하고 이어 모부인 정씨도 하세하여 초토草土에 묻혀 세상에 뜻이 없었다.

1627년(인조5) 정묘호란이 났을 때 의병을 도아 행조行朝(궁궐을 떠난 임시 조정)를 호위하려 하였으나 적이 물러나서 이루지 못하고 사계 김장생이 그 공로와 의를 행한 것으로 조정에 천거하여 이듬해에 사재감참봉을 제수받고, 이어 광흥창봉사廣興倉奉事,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 상의



▲ 충렬사 사당

원주부尙衣院主簿를 차례로 역임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자율이 심이 엄격하여 교활한 아전들이 검은 손을 내밀지 못하였다.

1636년(인조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뜻을 받들어 종묘사직을 따라 강도(강화도)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여 빈전殯殿을 강화도로 호종하였으나 이듬해 정월 22일 오랑캐가 강을 건너와 성을 포위하자 매국노들이 적을 영접하여 항복하는 것을 보고 상의원 군자감정 즉창 이시직과 윤전이 더불어 자결하기로 하고 집에 보낼 편지를 써놓고 모든 사무를 처리한 후 도장을 풀어서 소리小吏에게 주면서 난리가 진압되거든 갖다 바치라고 하고 남은 물건은 팔아서 관인館人(관을 지키고 빈객을 접대하는 사람)에게 관棺과 염습 비용으로 주라고 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순절하였다. 이시직과 윤전 두 사람이 호상하여 장사를 치루고 적이 물러간 뒤 그의 아들 기용基隆과 동생 시염時琰이 시체를 거두어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간좌에 안장하였다.

1638년(인조16) 인조는 연신薙臣의 청에 의하여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겸 경연 참찬관을 추증하고 시호를 충현忠顯이라고 내렸다. 강도江都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서원을 세운 뒤 충렬사라는 사액을 받고 김상현과 같이 모셨다.

그는 우암 송시열의 종형이며 사계 김장생의 문인으로 높은 학행과 충절은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이시직李時稷 (1572-1637)

조선의 문신 자는 성유聖俞, 호는 죽창竹窓, 시호는 충목忠穆, 본관은 연안이다.

찰방 이빈중李賓中과 목사 이응기李應箕의 딸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서는 조호익에게 배우고 뒤에는 김장생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다. 연안이씨가 회덕과 인연을 가진 것은 송여해가

이시직의 6대조 이석형의 사위였고 이시직의 조부 이정현이 송세영의 사위가 되는 혼인 관계로 이시직은 회덕에서 살게 되었다.

1606년(선조39) 사마시에 합격하고 1623년 사축서 별제가 되고 1624년 직장으로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그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공주까지 호종하였다가 이어 종묘서 직장을 거쳐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1635년(인조13) 병조좌랑 시강원정언 사헌부 장령 세자시강원 필서 장악원정 사복시정 봉상시정 등을 역임하고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자 송시영과 함께 자결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송시영이 먼저 자결하자 시신을 수습 매장 해 주고 옷을 벗어 객사의 주인에게 맡겨 아들이 오면 그 옷으로 염 할 것을 부탁하고 활 끈으로 목을 매어 순절하였다.

그 후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1638년에 충신 정문이 내려져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세워져 있다.

4) 심현언沈諤(1568-1637)

조선 인조 때 문신 자는 사화士和이고, 시호는 충열公이다. 후릉참봉厚陵參奉을 거쳐 지방의 수령직에 임명되어 치적을 올리고 돈녕부도령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 종사宗社를 따라 강도江都에 들어가 가묘의 위패를 땅에 묻고 손수 유소를 써 놓고 자결하자 그의 처 송씨도 같이 죽었다.

그후 인조가 유소를 보고 충절에 감탄하여 고향에 정문을 세우고 자손을 불러 등용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 종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성금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23.2.23~4.21)

◆대중회 장학성금	
송석근 대중회장	200,000

◆ 고액 연회비 납부자	
송재줄 경남 김해시 가락로	100,000
송충호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00,000
송재무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100,000
송석준 서울 종랑구 동일로	100,000
송택영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길	100,000
송영섭 충북 영동군 학산면	100,000
송종대 3월 9일 농협	100,000

◆ 종중 및 종친회 연회비	
• 제월당문화공파종중	500,000
송봉섭 대전 서구 가장로	
송구영 대전 동구 계족로	
송인무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송인덕 대전 유성구 진잠로	
송범섭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송인수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경영 대전 서구 청사로	
송인승 대전 서구 둔산로	
송인만 서울 금천구 독산로	
송인창 대전 서구 청사로	
송원섭 대전 대덕구 대전로	
송태섭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만영 대전 중구 평촌로	
송호영 대전 동구 동부로	
송수영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송철영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석봉 대전 서구 복수동로	
송인춘 대전 유성구 외삼로	
송석화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송인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길	
송인성 서울 관악구 관악로	
송인명 대전 동구 세천공원로	
송오영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송명섭 대전 유성구 외삼로	
송인국 충남 공주시 반포면	

• 모은공파종중	860,000
송문호 서울 동작구 사당로	
송수호 인천 부평구 부개로	
송윤종 인천 부평구 부개로	
송영학 광주 북구 대자로	
송윤학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송만석 전북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송재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정석 전남 영광군 홍농읍	
송주호 대전 중구 보문로	
송재조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유호 서울 은평구 불광로	
송형근 경기 김포시 걸포1로	
송정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송재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4로	
송재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송재달 경기 시흥시 신천동	

송재칠 서울 은평구 증가로	
송년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송금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송용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송찬석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송영석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송용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송재각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송장호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송재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송충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길	
송재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릉로	
송병호 광주 북구 반룡로	
송준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송희종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송재화 전북 김제시 제월2길	
송주호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송중호 경기 군포시 용호1로	
송백규 광주 북구 반룡로	
송민영 광주 북구 반룡로	
송영대 서울 광진구 자양변영로	
송재은 인천 서구 용두산로	
송영동 전북 고창군 해리면	
송영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송영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송영수 전북 군산시 회현면	
송용호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 후암공파종중	1,100,000
송찬영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인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송중영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송인택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송석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3길	
송병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3길	
송창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3길	
송석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송경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송경래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송경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송오영 전북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송효진 광주 광산구 신창로	
송석구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운영 대전 서구 동서대로	
송문영 대전 동구 가양로	
송석남 대전 서구 둔산로	
송병찬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송길영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훈구 대전 서구 월평로	
송은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송해영 대전 서구 관저동로	
송석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송주영 경기 의정부시 송양로	
송석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송석우 충남 서산시 동서1로	
송석일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송석조 대전 유성구 죽동로	

송석열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석범 전북 진안군 주천면	
송석금 세종 마음안로	
송석동 대전 대덕구 비래동로	
송석태 대전 동구 대전로	
송석재 서울 도봉구 해등로	
송석운 대전 서구 둔산로	
송석락 대전 서구 둔산북로	
송형종 대전 서구 신갈마로	
송민기 대전 서구 청사로	
송석봉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송두용 충남 서산시 동서1로	

• 충남 논산종친회	200,000
송인현 충남 논산시 상월면	
송인교 충남 논산시 대학로	
송광현 충남 논산시 시민로	
송병직 충남 논산시 체육로	
송재성 충남 논산시 부적면	
송지용 충남 논산시 대화로	
송석길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원섭 충남 논산시 계백로	
송영철 충남 논산시 번영로	

• 경남 진주종친회	240,000
송삼석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송채동 경남 진주시 강남로	
송석은 경남 진주시 도동천로	
송명호 경남 진주시 창렬로	
송상호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	
송동영 경남 진주시 초창로	
송오근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송무성 경남 진주시 천수로	
송헌석 경남 진주시 봉래길	
송석도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송을태 경남 진주시 석갑로	
송정원 경남 진주시 도동천로	

◆ 개인 연회비 납부자	
서울특별시	
송낙현 서울 강남구 선릉로	20,000
송종태 서울 강동구 상암로	20,000
송춘영 서울 강서구 화곡로	20,000
송오채 서울 금천구 독산로	20,000
송재감 서울 도봉구 노해로	20,000
송재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0,000

부산광역시	
송재홍 부산 금정구 금샘로	50,000
송호범 부산 영도구 영선대로	30,000

대구광역시	
송주도 대구 수성구 노변로	20,000
송휘백 대구 중구 봉산문화길	20,000

광주광역시	
송용덕 광주 북구 운신북길	30,000

대전광역시	
송천근 대전 서구 둔산북로	50,000
송달영 대전 서구 청사로	50,000
송인집 대전 중구 태평로	50,000
송철기 대전 중구 태평로	50,000
송태용 대전 동구 대전로	30,000
송진용 대전 동구 신기로	30,000
송덕영 대전 중구 보문로	30,000
송계용 대전 대덕구 대전로	20,000
송재용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20,000
송형섭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로	20,000
송재열 대전 서구 월평서로	20,000
송선용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20,000
송용진 대전 중구 돌다리로	20,000
송석찬 대전 중구 모암로	20,000

강원도	
송정현 강원 강릉시 보래미상길	20,000
송재철 강원 원주시 소초면	20,000
송성영 강원 속초시 번영로	20,000

경기도	
송재석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0,000
송인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0,000
송치옥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30,000
송현문 경기 화성시 우정읍	30,000
송석근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로	20,000
송성한 경기 양평군 지평면	20,000

충청남도	
송도현 충남 계룡시 서금암길	50,000
송선근 충남 보령시 주공로	50,000
송진팔 충남 논산시 강경읍	20,000
송영섭 충남 논산시 벌곡면	20,000
송길호 충남 서천군 마산면	20,000

전라북도	
송귀현 전북 무주군 무주읍	30,000
송재영 전북 전주시 서곡로	20,000

경상북도	
송환구 경북 울릉군 울릉읍	50,000
송재곤 경북 김천시 평화순환길	30,000
송재종 경북 김천시 고래실길	20,000

경상남도	
송기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0,000
송종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000

주소 및 성명 미상	
송재근 3월 10일 농협	50,000
송인훈 3월 23일 농협	50,000
송재각 2월 23일 하나은행	20,000
송춘영 3월 31일 하나은행	20,000

연회비 납부 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원들께서 납부하신 연회비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원께서는 연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 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중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중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恩宋의 文化財 (18회) =

48. 옥천 옥주 사마소

-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 분 류 : 유적건조물/정치국방/궁궐·관아/관아
- 수량/면적 : 1동
- 지정일 : 1987. 03. 31.
- 시 대 : 1654년(효종 5)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향수길 67-6 (상계리)
- 관리자 : 옥주 사마계



▲ 옥주 사마소 현판



▲ 옥천 옥주 사마소 전경



▲ 송시열 찬 의창중수기 현판

조선시대 지방 고을의 생원과 진사들이 모여 유학을 가르치고 정치를 논하던 곳으로 옥천 지방에 속한 사마소(司馬所)이다. 조선 효종 5년(1654)에 세워진 것으로, 우암 송시열선생이 쓴 「의창중수기」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래 어려운 백성을 위하여 곡식을 저장해 두던 의창 건물을 뜯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2칸이고, 지붕은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과 비슷한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앞면 4칸에 툇마루를 두고, 그 뒤로 오른쪽에는 마루, 왼쪽에는 온돌방과 부엌을 두었다. 내부에는 관성 사마안, 향약 계안, 옥천군 향계 규약 등 조선 시대 문인들의 면모를 알려주는 여러 편의 문서들이 있다.

49. 옥천 창주서원 묘정비

- 종 목 : 충청북도 기념물 제105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기
- 지정일 : 1996. 01. 05.
- 시 대 : 1697년(숙종 23)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3길 24 (이원리)
- 관리자 : 옥천군



▲ 창주서원 묘정비각

옥천군 이원면 현(縣) 마을 옛 창주서원(創洲書院) 자리에 서 있는 이 묘정비(廟庭碑)는 1682년 숙종(肅宗) 8년 창주서원이라는 사액(賜額)을 받고 세운 비로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글을 짓고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이 썼다. 이 비는 장방형(長方形)의 기초석(基礎石) 위에 비신(碑身)을 세웠으며 비신 위에는 기와 지붕 모양의 비 갓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올려놓아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창주서원은 이곳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금산 전투에서 순절한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과 유학자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덕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다. 비신의 높이는 169cm, 너비 89cm, 두께 44.5cm로 창주서원의 창건과정 이 기록되어 있다.



▲ 창주서원 묘정비

50. 조헌 신도비

- 종 목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기
- 지정일 : 1996. 01. 05.
- 시 대 : 1649년(인조 27)
- 소재지 :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농리 926-1
- 관리자 : 배천조씨 문열공파

신도비(神道碑)는 묘소 앞 큰 길가에 세운 것으로 주인공의 행적과 업적 등을 알 수 있다. 조헌 신도비는 조선 중기의 문신인 중봉(重峯) 조헌(趙憲, 1544~1592) 선생의 행적을 기리고 있는데 표충사와 묘소 입구에 있다.

조헌은 명종 20년(1565) 성균관에 입학하여 2년 후인 1567년 병과에 급제하였다. 그후 호조좌랑·성균관전직·사헌부감찰·전라도 도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옥천군 안읍 밤티로 들어가 제자 양성과 학문에 전념하였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 1,600여명을 모아 청주성을 수복하였으나 충청도 순찰사의 방해로 해산당하여, 불과 700여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하였고 고바



▲ 조헌 신도비

야가와와 왜군과 전투를 벌여 끝까지 분전하다가 칠백의병들과 함께 전사하였다.

신도비에는 선생의 이 같은 생애와 최후 격전지였던 금산싸움에 대하여 자세히 적고 있다.

인조 27년(1649)에 세운 비로,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이 글을 짓고, 이조판서 송준길(宋浚吉)이 행서로 썼으며, 두전(頭篆)은 우의정 김상용(金尙容)이 썼다.



▲ 조헌 신도비각